

국내 창작오페라 해외공연지원 심사평

- 일시 : 2011. 6. 17(금) 10:00~12:30
- 장소 : 예술위원회 본관 3층 대회의실
- 심의위원 : 박영근, 이석렬, 허미경, 정준호, 김창욱

국내 창작오페라 해외공연지원

국내 창작오페라의 해외공연 지원을 통해 오페라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순수예술분야의 한류확산 등 문화예술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본 사업에 총 5개의 단체가 지원 신청을 하였다. 지원신청을 한 5개 단체의 사업 장소가 모두 중국이었으며, 베이징이나 연변 지역 등 그동안 중국과의 교류 사업이 활발한 지역 뿐 아니라, 청도나 텐진 등 최근 그 위상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한국의 창작 오페라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점은 인상적이었다.

대규모의 준비가 필요한 오페라의 특성상 다섯 건의 신청사업 중 단체의 공연실적과 해외 공연 경험을 주요한 선정 기준으로 삼았으며, 장소 등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선정에서 제외하였다. 이상의 기준으로 (사)뉴서울오페라단과 서울오페라앙상블 2개의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결정하였으며, 지원액은 출연 인원 및 공연무대 구성계획 등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총지원액 300,000,000원 중 (사)뉴서울오페라단에 200,000,000원, 서울오페라앙상블에 100,000,000원을 배정하였다. 지원 선정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순수예술분야 특히 오페라 분야의 한류 확산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.

음악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